

'담양딸기' 위한 AI 스마트팜 개발 MoU 체결

-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27일 협약식 개최



▲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이 27일(화) 오전 11시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담양군의 딸기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와 전라남도 담양군,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이 담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의 **신품종 재배, 정밀농업*** 및 **인공지능 스마트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은 12월 27일(화) 오전 11시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및 유관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정밀농업**: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 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생산방식이다.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농자재 및 작업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생산 관리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농촌의 인력난, 토지부족, 기후변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스트 등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동연구 및 기술보급 협력** △**담양 딸기 신품종의 해외 보급을 위한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정보 지원 협력** △**인공지능 스마트팜 분야, 딸기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분야 등의 정부 지원사업 공동 참여** △**기관 보유 S/W 및 H/W 등 공동 활용** △**농업환경 빅데이터 기반 딸기 신품종 재배 매뉴얼 제작 협력** △**딥러닝 알고리즘과 초분광 분석 모델 틀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딸기는 지난 2010년 딸기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등록(제70호)을 완료해 맛과 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은 바 있으며,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품종인 '죽향'과 '메리퀸'은 당도·경도·과형(果形)·향 모두 세계적으로 최우수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

담양군은 최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해 개인화·정밀화에 기반한 생산성을 높이는 '애그테크(AgTech=Agriculture+Technology)'를 활용한 첨단농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군비 30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스트 등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 ICT(정보·컴퓨터기술), 드론, 농업용 로봇 및 고부가 가치 정밀 농산물 재배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애그테크 개발 및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이 담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로 스마트팜에서의 담양 딸기 재배 환경과 생육기술, 작물 효능 및 성분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담양군이 개발할 신품종 딸기의 재배기술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잘사는 부자농촌’ 만들기를 위한 ‘담양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농업전문가가 축적한 데이터와 정보가 큰 부가가치를 갖도록 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첨단농업의 중심도시 담양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